

##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 일 자유의지와 진로만족의 관계: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김 나 래      노 혜 연      박 기 산      이 기 학<sup>†</sup>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인간행동연구소 / 전문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Psychology of Working Theory(PWT)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의 모형을 국내 대학생에게 적용해보고자 하였다. 통합적 모형을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매개된 조절효과를 지니는지를 검증하였다. 대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일 자유의지, 진로만족과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 자유의지, 진로만족, 사회적 지지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다른 변인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일 자유의지가 이를 매개하며,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부과 완벽주의, 일 자유의지, 진로만족, 사회적 지지, 매개된 조절효과

<sup>†</sup>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완벽주의는 지나친 기준과 목표를 중시하는 개인의 한 성향으로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Stoeber & Otto, 2006). 초기 완벽주의 연구는 단일한 속성으로 개념화 되었으나(Hamachek, 1978; Pacht, 1984), 이후 다수의 학자들은 완벽주의의 적응적 특성과 부적응적 특성을 주목하며 다차원적으로 완벽주의를 정의했다(Dunkley, Blankstein, & Berg, 2012; 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Hewitt, Flett, Besser, Sherry, & McGee, 2003). 대학생의 경우, 부적응적 차원의 완벽주의 성향은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심리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김현정, 손정락, 2006; 정해숙, 정남윤, 2011). Hewitt과 Flett(1991)은 완벽주의를 ‘자기 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로 구분했다. 이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란,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방법이라는 믿음과 관련된다(Enns & Cox, 2002; Hewitt & Flett, 1991, 2004; Stoeber, Feast, & Hayward, 2009).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다른 완벽주의 요인과 달리, 비교적 일관적으로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져왔다(김윤희, 서수균, 2008; 하정희, 장유진, 2011; Flett, Hewitt, Bankstein, & O’Brien, 1991).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완벽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경향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성과도 관련된다(배다현, 김정모, 2019; Hewitt et al., 2003). 따라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은 이들은 불안 수준이 높고,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수행에 과도하게 신경을 쓴다(양한빛, 2018; Flett, Besser, Davis, & Hewitt, 2003). 이에 우울이나 분노, 폭식행

동 등을 경험하기도 쉽다(Chang & Rand, 2000; Sherry, Mackinnon, & Gautreau, 2016; Sherry, Mackinnon, Macneil, & Fitzpatrick, 2013; Sherry, Hewitt, Besser, McGee, & Flett, 2003).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이러한 심리적 문제에 취약하며, 부인과 억압의 방어기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자연, 오경자, 2015; 최정임, 1998).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욕구에 침묵하며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고(박지영, 송현주, 2018), 자기 비난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태영, 송미경 2017).

특히, 진로 영역에 있어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은 다양한 부적응적 결과를 야기한다(김민선, 2014; 박혜선, 김봉환, 2013; 이현주, 2011, 2012; 홍성권, 강영신, 2018; Andrews, Bullock-Yowell, Dahlen, & Nicholson, 2014). 완벽주의로 인한 우울,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진로 결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Frost & Shows, 1993; Page, Bruch, & Haase, 2008). 실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이들은 타인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하므로, 많은 경우 진로미결정 상태에 놓여진다(김민선, 2014; 이현주, 2011; 홍혜영, 안혜선, 2009; Lehmann & Konstam, 2011; Leong & Chervinko, 1996). 또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진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며 낮은 진로성숙을 보였다(우영지, 이기학, 2007; Park, Choi, Nam, & Lee, 2011), 진로적응성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toeber, Mutinelli, & Corr, 2016). 이러한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개인의 진로와 관련한 전반적 만족감을 의미하는 진로만족에 있어서도(정미예, 조남근, 2012; Lounsbury et al., 2003),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대학생은 진

로 영역에서 낮은 만족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경험하는 보살핌, 사랑, 가치감 그리고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Cobb, 1976). 즉,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 자원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는 도움, 인정, 관심을 비롯한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김나래, 2019; Cohen & Hoberman, 1983; Caplan, 1974).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은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전환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한 변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과 같은 증상(distress symptoms)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unkley, Blankstein, Halsall, Williams, & Winkworth, 2000). 부모의 지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 Lau, 2008).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의 관계를 살펴본 또 다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완벽주의가 지니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hou, Zhu, Zhang, & Cai, 2013). 또한 국내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소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승리, 2018),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정상희, 2015)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세정, 2015). 아울러, 진로영역에 있어서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중학, 최보영, 201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적 지지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 또한 조절할 것이라 예상된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아져 자신의 진로에 만족감을 경험하기 어려운 대학생에 있어,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부정적 관계가 심화되는 것을 막는 완충기제(buffer)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이 같은 중재적 역할을 한다면, 왜 이러한 조절효과가 발생할까? 이처럼 조절효과가 왜 발생하는지 그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모형으로 ‘매개된 조절모형’을 들 수 있다(Muller, Judd, & Yzerbyt, 2005). ‘조절된 매개모형’이 매개효과가 어떠한 때에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매개된 조절모형은 조절효과가 왜 발생했는지를 매개과정을 통해 이해하기 위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정선호, 서동기, 2016).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 단순 매개 혹은 조절모형 이상으로 이러한 매개된 조절모형 혹은 조절된 매개모형의 검증을 통해 통합적으로 변인 간 이해를 얻으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제(조절)가 어떻게(매개)(how of the when) 발생하는지’를 다루는 매개된 조절분석(Hayes, 2013, 이형권(2016)에서 재인용)을 통해 보다 확장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령, 사회적 지지가 낮으면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낮은 진로만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가 낮은 이들

에게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해 일 자유의지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진로만족에 있어서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일 자유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므로 결과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일 자유의지를 거쳐 진로만족으로 가는 경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 자유의지(work volition)는 직업 선택에 제약이 있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Duffy, Diemer, & Jadidian, 2012; Duffy, Diemer, Perry, Laurenzi, & Torrey, 2012). Psychology of Working Framework(PWF)에서는 일 자유의지를 직접적으로 정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업 선택의 결정력과 제약 조건들의 부정적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처음으로 일 영역에서 의지(volition)의 의미를 확장시켰다(Blustein, 2006; 2008). 이후, Duffy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일 자유의지가 개념화되었고,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척도가 개발되었다(Duffy et al., 2012a; Duffy et al., 2012b). 그리고 최근 통합된 이론으로 Psychology of Working Theory(PWT)가 등장하였는데, 이 이론은 진로 및 삶의 안녕감을 설명할 때, 일 자유의지가 지니는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다(Duffy, Blustein, Diemer, & Autin, 2016). 현실의 다수 직장인들이 본인의 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Duffy, Autin, & Bott, 2015),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직업을 결정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지각한다(Creed, Patton, & Bartrum, 2004; Patton, Creed, &

Watson, 2003). 일 자유의지는 직장인의 직무 만족과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Duffy et al., 2015; Duffy, Bott, Torrey, & Webster, 2013),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일 자유의지가 높을 때, 삶의 만족(Buyukgoze-Kavas, Duffy, & Douglass, 2015) 그리고 학업 만족이 높았다(Duffy, Douglass, & Autin, 2015). 일 자유의지가 높을수록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였고(Jadidian & Duffy, 2012), 진로적응성과도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utin, Douglass, Duffy, England, & Allan, 2017). 실제 일 자유의지는 대학생의 진로만족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나래, 이기학,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또한 일 자유의지는 진로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의 두 관계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없지만, 완벽주의가 높다는 것은 이상적 기준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성이 높았고(Blankstein, Flett, Hewitt, & Eng, 1993; Flett, Blankstein, Hewitt, & Koledin, 1992),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경향을 지닌 사람들은 자율적인 진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행동에 있어서 과제 행동을 지연한다(홍성권, 강영신, 2018). 또한, 일 자유의지는 통제감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인들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데, 선행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이러한 변인들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통제감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Halgin & Leahy,

1989; Hamachek, 1978; Weisinger & Lobsenz, 1981), 진로장벽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 (Gnilka & Novakovic, 2017).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공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통제력이 떨어지며, 미래의 성공에 대해 덜 확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lett, Hewitt, & Martin, 1995; Ferrari, Johnson, & McCown, 1995). 이러한 선행연구로 미루어볼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대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진로에서도 원하는 일을 직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일 자유의지)이 부족하기에 자신의 진로 전반의 상황에 불만족할 것이라고 본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경로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일 자유의지가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종합할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여, 일 자유의지 그리고 진로만족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매개된 조절효과). PWT(Psychology of Working Theory; Duffy et al., 2016), 그리고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 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2)은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한 근거가 된다. 먼저, PWT에서 일 자유의지 수준은 4가지 중재변인인 사회적 지지, 사회비평의식, 주도성, 사회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Duffy et al., 2016). 즉, PWT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장벽이 일 자유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할 것으로 본다. 실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도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사회적 지위와 일 자유의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김나래, 2019). 즉,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충분하다면, 사회적 지위가 일

자유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언급한대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에 있어서도, 완벽주의가 사회적 지지와의 상호작용하여 진로관련 결과변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종학, 최보영, 2016; 이승리, 2018; 정상희, 2015; 홍세정,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충분한 일 자유의지와 낮은 진로만족을 지니고 있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있어 주변인의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여, 일 자유의지 및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 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2)이란 동기(motivation)에 관한 이론으로, 개인은 기본심리욕구(유능성, 자율성, 관계성)를 충족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건강하며, 높은 수준의 안녕감(well-being)을 경험하게 된다. 욕구 충족을 통해서 개인은 내적인 동기가 촉진되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느낀다. 이 중 자율성 욕구는 자기결정이론의 핵심요소로, 자신이 스스로 목표 설정 및 행위의 주체자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2). 자율성은 직업심리학에 적용했을 때 직업적 자율감으로,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반영해 직업적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Ryan & Deci, 2002; Soenens et al., 2007). 따라서 일 자유의지는 자기결정이론에서 자율성과 맥을 같이 한다(Jadidian & Duffy, 2012; Pesch, Larson, & Surapaneni, 2016).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은 자율성 욕구와 같은 내적

동기 추구를 방해하는데,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이들은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기 보다는 타인의 승인과 기대를 충족하고자 에너지를 쏟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Hewitt & Flett, 1991). 실제로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차원에 집중하므로(Deci & Ryan, 1985), 자율성이 낮은 반면에(Chang, 2006), 외적 보상에 따른 동기화와는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s & Blakstein, 2000).

아울러, 자기결정이론의 하위 이론인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CET; Deci & Ryan, 1985)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내적 동기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인지평가이론에 따르면, 개인을 촉진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은 내적 동기 및 자율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킨다. 즉, 개인이 인지하는 자율성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얼마나 내적 통제감을 허용하는 지지적인 환경인지가 중요하다(Brown & Ryan, 2004). 따라서, 이론은 자율성 욕구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며(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2),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들에게는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이 자율성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지지해주는지가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인이 된다(Pesch, Larson, & Surapaneni, 2016). 따라서, 많은 선행 연구에서 SDT 및 CET를 토대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만족(Pesch et al., 2016) 및 진로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Guan et al., 2016), 그리고 부모 및 친구의 지지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한 바 있다(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한편, 자기결정이론에서는 결과변인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중시하는데, 이는 직업심리학 관점에서 진로만족에 해

당된다(Pesch et al., 2016).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대체로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보고되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이들이 수행에 대한 자신감(자기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밝혀지거나(서명희, 2019; Hart, Gilner, Handal, & Gfeller, 1998), 자아탄력성 및 성취동기와 정적 상관을 보이기도 하였다(성주희, 홍혜영, 2012).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이 진정 호소하는 어려움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만족감이므로(김현정, 손정락, 2006; 최인영, 김은하, 신희천, 2018), 본 연구에서 결과변인으로는 진로 결정효능감 및 적응성과 같은 수행결과 및 기대를 반영한 변인이 아닌 진로만족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이 Psychology of Working Theory와 자기결정이론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할 때,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일 자유의지를 증진시키는 과정을 통해 진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매개된 조절효과를 예상하며,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일 자유의지, 사회적 지지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경로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대학생이 진로불만족을 경험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을 통해 이를 완화해야 할지 그 상담적 개입 초점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절차는 Muller, Judd와 Yzerbyt(Muller et al., 2005; 정선호, 서동기, 2016에서 재인용)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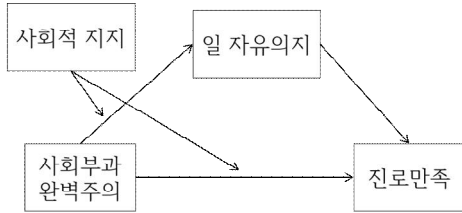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 효과 모형)

**가설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3.**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일 자유의지를 통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학과 연구심의 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는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연구 설명(소요시간, 비밀보장 원칙, 연구 목적 등) 내용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253명의 참가자가 응답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는 설문 조사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로 설문이 진행되었고, 설문은 20여 분이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 학생은 남학생 112명(44.3%), 여학생 141명(55.7%)으로 평균연령은 21.24세(SD=1.92)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77명(30.4%), 2학년 69명(27.3%), 3학년 57명(22.5%), 4학년 이상 50명(19.8%)으로 비교적 고루 분포되었다.

### 측정 도구

####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Hewitt와 Flett(1991)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HMPS)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국내에서 한기연(1993)이 번안한 후, 이미화(2001)가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HMPS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하위요인이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 요인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45문항(하위요인 별 15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점 리커트식으로(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응답한다. 문항의 평균을 내어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 문항으로는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쉽게 인정한다(역)”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을 성공시키기를 기대한다”가 있다. 내 적합치도의 경우, 이미화(2001)의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Cronbach's  $\alpha$  값은 .82로 나타났다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으로 나타났다.

#### 일 자유의지

일 자유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Duffy 등(2012)이 개발한 Work Volition Scale-Student Version을 국내에서 번안 및 타당화 한 척도(김

나래, 이기학, 2014)를 사용하였다. 두 하위요인은 의지(7문항)와 제약(8문항)이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의지요인에 해당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7점 리커트식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었으며, 문항의 평균을 내어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와 “나는 나의 미래 직업 선택에 완전한 통제감을 느낀다”이다. 의지요인의 *Cronbach's a*는 김나래, 이기학(2014)의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 진로만족

진로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 Lounsbury 등 (2003)이 개발하고, 정미예와 조남근(2012)이 번안한 진로만족감 문항을 사용하였다. 단일요인으로 총 2개의 문항“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로 방향에 있어 명확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진로 진행 과정에 만족하고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각 문항의 평균을 내어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지각하며 진로 관련 진행 사항에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값(*Cronbach's a*)은 정미예와 조남근(2012)의 연구에서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Abbey와

Abramis 그리고 Caplan(1985)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전지아(1990)가 번안하고 유성은(1997)이 수정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2개 요인(사회적 갈등, 사회적 지지)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6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각 문항의 평균을 내어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 문항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염려해주었다”,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주었다”가 해당된다. 유성은(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7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 자료분석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Hayes, 2012)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상관관계는 Pearson 이변량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통계분석에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척도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를 구하여,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Muller 등(2005)이 제시한 통합모형 및 회귀분석 접근법에 따라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완벽주의와 진로만족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1단계)을 실시하였다. 이 경로(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조절변인의 효과)가 유의한 경우,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이 적용가능하다(정선호, 서동기, 2016). 2단계로는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조절효과 분석은 Process Macro에서 model 1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일 자유의지 수준에 따라 매개되는 분석을 하였다. 이는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 분석(3단계)에 해당하며, Process Macro에서 model 8에 해당한다.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CI: 95%, 5,000번).

## 결 과

###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일 자유의지( $r=-.210, p<.01$ ), 사회적 지지( $r=-.276, p<.01$ ), 그리고 진로만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179, p<.01$ ). 일 자유의지는 사회적 지지( $r=.480, p<.01$ ), 진로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436, p<.01$ ). 사회적 지지와 진로만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223, p<.01$ ).

### 모형분석

####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Muller 등(2005)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1단계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Hayes(2012)의 macro PROCESS model 1을 활용하였다. 표 2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용하여,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08, p<.01$ ). 아울러, 조절효과 크기의 유의미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Cohen(1988)의 공식<sup>1)</sup>을 사용하였으며,  $.030((.0934-.0649)/(1-.0649))$ 으로 나타나 임계치인 .02보다 큰 경우이므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여,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조절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한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 분석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효과가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Mean-1SD)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249)=-.452(p<.001)$ ).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Mean+1SD) 유의하지 않았다( $F(1, 250)=-.077(p=.355)$ ).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으면 낮은 진로만족을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 그림 2와 같다.

####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Muller 등(2005)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2단계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마찬가지로 Hayes(2012)의 macro PROCESS model 1을 활용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용하여, 일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95, se=.116, p<.05$ ). 아울러, 조절효과 크기의 유의미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

1)  $f^2 = (\text{step2의 } R^2 - \text{step1의 } R^2) / (1 - \text{step1의 } R^2)$ 이며, .02보다 크면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Cohen, 1988)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	1	2	3	4
1. 사회부과 완벽주의	-			
2. 일 자유의지	-.210**	-		
3. 사회적 지지	-.276**	.480**	-	
4. 진로만족	-.179**	.436**	.223**	-
평균(M)	3.696	4.515	3.915	3.104
표준편차(SD)	0.719	0.854	0.568	0.896

주. \*\* $p < .01$ .

표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진로만족	$\beta$	se	t	$\Delta R^2$	F
사회부과 완벽주의	-.234	.083	-2.829**	.065	8.551***
사회적 지지	.282	.099	2.838**		
사회부과 완벽주의 $\times$ 사회적 지지	.375	.134	2.796**	.028	7.819**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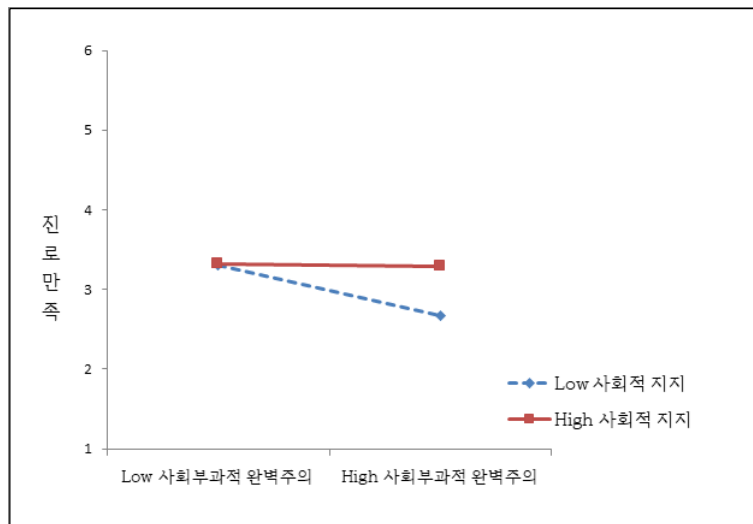


그림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해 Cohen(1988)의 공식을 사용하였으며, .025 .02보다 큰 경우이므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2561-.2371)/(1-.02371))으로 나타나 임계치인 확인하였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일 자유

표 3.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일 자유의지	$\beta$	se	t	$\Delta R^2$	F
사회부과 완벽주의	-.159	.071	-2.219*	.237	28.580***
사회적 지지	.675	.086	7.879***		
사회부과 완벽주의 × 사회적 지지	.295	.116	2.546*	.019	6.482*

주. \* $p < .05$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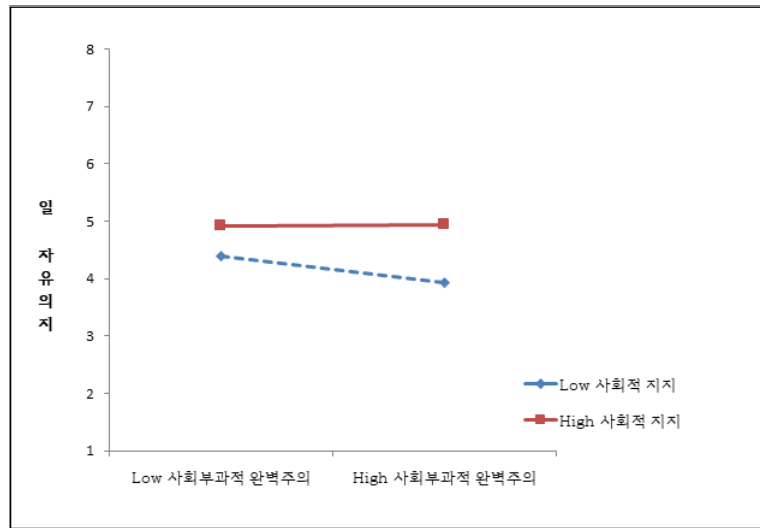


그림 3.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아울러,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 분석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효과가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Mean-1SD)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249) = -.330, p < .01$ ). 한편,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Mean+1SD),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49) = -.035, p = .625$ ).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3과 같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으면 낮은 일 자유의지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Muller 등(2005)이 제안한 절차에 따라, 마지막 단계로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은 Hayes(2012)의 macro PROCESS model 8을 활용하였다. 표 4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용하여 일 자유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beta = .295, se = .116, p < .05$ ),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는 진로만족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다(사회부과 완벽주의:  $\beta = -.168, se = .078, p < .05$ , 일 자유의지:  $\beta = .416, se = .069, p < .001$ ). 아울러, 일 자유의지를 통제된 후에도 진로만족에 대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적 지지

표 4.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에서 일 자유의지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

종속변수: 일 자유의지	$\beta$	se	t	LLCI	ULCI
사회부과 완벽주의( $a_1$ )	-.159	.071	-2.219*	-.299	-.018
사회적 지지( $a_2$ )	.675	.086	7.879***	.506	.844
사회부과 완벽주의 × 사회적 지지( $a_3$ )	.295	.116	2.546*	.067	.523
종속변수: 진로만족	$\beta$	se	t	LLCI	ULCI
일 자유의지( $b$ )	.416	.069	6.068***	.281	.551
사회부과 완벽주의( $c_1$ )	-.168	.078	-2.151*	-.322	-.014
사회적 지지	.001	.104	.005	-.204	.205
사회부과 완벽주의 × 사회적 지지( $a_4$ )	.252	.127	1.986*	.002	.502

주. \*  $p < .05$ , \*\*\*  $p < .001$ .

표 5. 사회적 지지의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	조절변수의 조건부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beta$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 - 1SD$	-.137	.050	-.233	-.362
$M$	-.056	.033	-.118	.011
$M + 1SD$	-.015	.032	-.076	.054

주. Boot L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Boot ULCI = 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의 상호작용의 영향이 여전히 유의했고( $\beta = .252$ ,  $se = .127$ ,  $p < .05$ ), 이는 기존 조절효과( $\beta = .295$ ,  $se = .116$ ,  $p < .01$ )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부분매개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조건부 간접효과를 위해(conditional indirect effect)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 표본 추출을 활용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95% 신뢰구간). 결과는 표 5와 같다. 간접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수준(Mean-1SD)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적 지지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상호작용하여서 일 자유의지와 진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러한 조절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고, 일 자유의지가 이러한 조절효과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진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 있어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작용 효과(사회부과 완벽주의 × 사회적 지지)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일 자유의지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발된 소명 이론에 따르면(Duffy, Dik, Douglass, England, & Velez, 2018),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은 높은 성취 욕구와 낮은 자존감을 특징으로 하므로, 진로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그 변인 간 기제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언제’ 이러한 변인 간 관계가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지를 사회적 지지라는 중재 변인의 역할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가원, 김명인, 2007; 이승리, 2018; 정상희, 2015; 홍세정, 2015). 또한 사회적 지지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중학, 최보영, 2016).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특히,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 유의한 수준으로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더라도 이로 인해 진로 영역에서 불만족한지는 그 여부나 정도

가 개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었지만, 일 자유의지와 개념상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알려진 통제감, 지각된 진로장벽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 자유의지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진로장벽 및 진로적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rilka & Novakovic, 2017).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일 자유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두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이론인 PWT에서 제안하는 일 자유의지에 선행하여 사회적 지지가 지니는 조절적 역할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결과에 해당한다(김나래, 2019; Duffy et al., 2016). 비록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해 높은 기준과 기대에의 부응에 대한 부담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낮추지만, 주변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지지와 지원이 충분하다면 그러한 성향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성향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진로불만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은 비록 완벽주의 성향이 있더라도 진로불만족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그렇다면 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

은 이들이 낮은 진로만족으로 가는 경로가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 더 두드러지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일 자유의지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는 매개적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일 자유의지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하고 성숙한 대학생활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지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김나래, 이기학, 2014; 이미경, 성현모, 김은주, 지수인, 안성식, 2016; Buyukgoze-Kavas et al., 2015; Duffy et al., 2015; Jadidian & Duffy,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는 진로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김나래, 이기학, 2016). 최근 일 자유의지 변인이 강조되며 해외를 중심으로 관련 이론 및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 자유의지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재확인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넷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개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 또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라는 조절변인에 따라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와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 관련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기결정이론(SDT)을 기반으로 모형을 설정한 것이다. 즉, SDT 및 하위 이론인 인지평가이론(CET)이 진로심리학 분야 및 완벽주의 성향의 대학생을 이해함에 있어서 적용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 두 변인을 조절하는 사회적 지지와 매개하는 일 자

유의지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인지평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율성(일 자유의지)이 사회환경적 요인(사회적지지)에 의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안녕감(진로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2). 즉, 자율성을 지지하는 맥락적 상황에 놓여있는 개인은 자신의 내적 동기를 추구할 수 있다(Guay, Boggiano, & Vallerand, 2001). 이러한 이론이 타인의 기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개인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 연구들이 진로 영역에서 사회적 지지가 지니는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 검증에 초점을 두거나(김종학, 최보영, 2016; 이승리, 2018; 정상희, 2015; 홍세정, 2015; Yoon & Lau, 2008; Zhou et al., 2013), 일 자유의지의 매개적 역할을 강조했다면(Autin et al., 2017; Bouchard & Nauta, 2018; Duffy et al., 2015), 본 연구는 조절효과가 왜 발생하는지를 매개과정을 통해 검증하여(매개된 조절효과) 보다 포괄적으로 이들 변인간 관계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며, 한 단계 발전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우종필, 2015).

특히,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일 자유의지를 통해 진로만족으로 가는 간접효과가 강화되는 점을 검증하였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이들의 진로 발달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은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와 맞물릴 때, 일 자유의지를 낮추며, 낮은 진로만족으로 이끈다. 즉,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개인은 주변으로부터 지지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 원하는 진로를 택할 수 있으리라는 능력도 낮으며, 진로에 있어 불만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반면, 사회

적 지지가 높다면,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해 일 자유의지와 진로만족으로 가는 부정적 경로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은 그것을 촉진하는 사회 환경적 지지원이 수반될 때 비로소 긍정적 차원의 안념감을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이다(Deci & Ryan, 1985; Pesch, Larson, & Surapaneni, 2016). 이에 사회적 지지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한 일 자유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진로만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호할 수 있을 뿐더러 진로만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임상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지니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 내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져왔다(Wang, Cai, Qian, & Peng, 2014).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이들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중재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치료적 개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상담장면에서 내담자 주변의 잠재적 사회적 지지 체계를 탐색하고, 이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지지 시스템을 마련할 방안을 내담자와 모색해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대학생에 있어 진로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너무 낮은 사회적 지지는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주변 자원을 탐색하고 긍정적 지지를 자각함으로써 진로 결정에의 통제감과 자율감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가능하다. 특히, 낮은 사회적 지지에서만 매개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타인으로부터 승인 받고자 하는 성향에 집중해있는 대학생이더라도 주변으로부터 충분한 사회적 지지 자원을

받고 있다면, 낮은 일 자유의지나 낮은 진로만족으로 가는 연결은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진로관련 결과변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다 면밀하고 다각도의 관찰이 필요함을 뜻한다. 실제 완벽주의가 높은 기준 설정 자체보다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직된 사고가 역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허심양, 2011). 여기에 본 연구는 높은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대학생들은 진로에 있어서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들과 다른 내적 프로세스를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내담자 상담개입에 있어서, 왜곡된 인지에서의 초점과 지지적 환경에의 마련을 중심으로 상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친구, 동료, 가족 등의 가까운 지인 뿐 아니라, 상담장면에 있는 경우 상담자와의 신뢰로운 관계(rapport) 또한 하나의 지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령,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있어 상담협력관계는 지지적 자원이 될 수 있다(방기연, 1992; 황인호, 2005).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내담자 상담에 있어서도 상담 장면 및 상담 밖 환경에서 내담자를 조력할 수 있는 지지 자원에서의 활용이 임상적 효용을 지닐 것이다.

둘째, 일 자유의지의 매개효과는 자신의 원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으리라는 의지와 자신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내담자를 만날 때, 진로와 관련한 호소에 있어서, 내담자가 지각하는 진로결정에의 의지가 어느 수준인지를 먼저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일 자유의지는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인지에 해당되므로, 비교적 변화가능한 변인에 속한다(Blustein, 2018; Duffy et al., 2016). 따라서 일 자유의지 수준을 측정하고, 현재 낮은 일 자유의지를 보고하는 경우 이를 촉진하는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령, 완벽주의적 내담자에 있어 인지행동적 개입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김현정, 손정락, 2006; 서민정, 손정락, 2015), 본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해 진로와 관련해 왜곡된 인지를 보이는 내담자에 있어 일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개입이 가능하다. 가령,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를 형편없게 볼 것이다,’ ‘남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 내 진로를 바꿔야 한다’와 같은 일 자유의지와 관련한 부적응적이고 비합리적인 인지체계를 다룰 수 있으며, 진로 선택에의 무력감과 낮은 통제감을 합리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있더라도 직업 장면에서 진정 바라는 일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입이 가능하다.

셋째, 특히,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하여 일 자유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진로만족에 영향을 주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를 사회적지지 및 일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구조로 통합적 검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령, 사회적 인정을 중시하며 높은 기준을 지니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대학생이 사회적 바람직함에 부응하는 진로 선택을 해나가면서도 심

리내적으로는 불만족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진로 영역에서 대기업 입사 및 시험(CPA, 공무원 등)을 준비하고 수행 수준도 높으면서도 진로불만족 상태를 호소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할 때,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의 경우, 낮은 사회적 지지로 인해서 충분한 일 자유의지를 지각하지 못함에 따라 현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해당 개인이 Deci와 Ryan(1987)이 언급한 자율감을 촉진하는 지지적 맥락인지 특정 결정을 압박하는 통제적 맥락인지에 따라서 자율성이 내적 동기로 원활하게 기능하여 개인의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내담자가 처한 상황적 그리고 개인적 자원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성향의 내담자를 진로상담 할 때 사례 개념화 및 개입적 초점을 돕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대학교 표집으로 인한 표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가로 온라인 패널사이트를 통해 국내 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세부 정보(거주 지역 등)을 반영하여 표집하지는 못하였기에 도출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표본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을 포함하는 표집을 통해 연구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추후 다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재확인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향후, 실제 일 자유의지와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춘 상담적 개



입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로 인해 진로 불만족을 호소하는 대학생에게 효과를 지니는 지 검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성 검증을 통해 본 연구 결과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만족의 관계를 매개된 조절모형으로 검증한 첫 연구로, Psychology of Working Theory와 자기결정이론을 바탕으로 보다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적 지지와 일 자유의지 그리고 진로만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이들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는 의지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진로 관련해 불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으나, 사회적 지지 즉, 자기 주변의 중요한 이들은 자신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도 이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내적 갈등을 조율함으로써, 진로 영역에서도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김가원, 김명언 (2007).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대학교 1학년생이 경험하는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어려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 394-395.
- 김나래 (2019). *Social status and meaningful work: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work volition and social support*.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나래, 이기학 (2014).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 Work Volition Scale (WVS)의 타당화 연구. 직업교육연구, 33(2), 41-58.
- 김나래, 이기학 (2016).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와 진로만족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9(1), 47-64.
- 김민선 (2014). 대학생들의 완벽주의와 진로미결정의 관계: 적응유연성과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4), 145-166.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중학, 최보영 (2016).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4(1), 25-42.
- 김현정, 손정락 (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박지영, 송현주 (2018). 대학생의 다차원적인 완벽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 침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4(1), 301-318.
- 박혜선, 김봉환 (2013). 여대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4(1), 343-357.
- 방기연 (1992). 상담 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자 반응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다현, 김정모 (2019).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대인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2), 235-254.
- 서명희 (2019). 어머니의 학업성취압력이 고등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이

- 중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6, 1-19.
- 서민정, 손정락 (2015). 합리적 정서 행동치료가 대학생들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신체 불만족 및 신체상의 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47-566.
- 성주희, 홍혜영 (2012).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1), 325-340.
- 양한빛 (2018).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 부적응적 자기초점적 주의와 안전행동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영지, 이기학 (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23-1039.
- 우종필 (2015). 구조방정식모델과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모델 및 조절된 매개모델에 대한 고찰. *상품학연구*, 33(4), 45-56.
- 유성은 (1997). 완벽주의적 경향,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성현모, 김은주, 지수인, 안성식 (2016).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일 자유의지와 일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9(3), 141-159.
- 이미화 (2001).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리 (2018).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태영, 송미경 (2017).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간의 관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2), 397-416.
- 이현주 (2011).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자아핸디캡전략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3), 31-39.
- 이현주 (2012). 완벽주의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자아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동기의 중재효과. *진로교육연구*, 25(4), 199-220.
- 이형권 (2016). 조절분석과 조절된 매개분석 및 매개된 조절분석의 오해와 진실. *관광연구*, 31(3), 213-248.
- 전지아 (1990). 산후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망이 산후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예, 조남근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 예측모형. *상담학연구*, 13(2), 401-415.
- 정상희 (2015). 초기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성호, 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57-282.
- 정해숙, 정남운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89-107.

- 최인영, 김은하, 신희천 (2018).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2), 133-153.
- 최자연, 오경자 (2015).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 외부 통제소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161-173.
- 최정임 (1998). 완벽주의 성향, 시험불안, 학업 성취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정희, 장유진 (2011). 대학생들의 완벽주의 성향과 주관적 행복감 및 사회적 지지제공의 관계: 사회적 지지수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27-449.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심양 (2011).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역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권, 강영신 (2018).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문화적 역량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1(1), 81-101.
- 홍세정 (2015).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영재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 안혜선 (2009).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불안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7), 149-175.
- 황인호 (2005).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47-563.
- Abbey, A., Abramis, D. J., & Caplan, R. D. (1985).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2), 111-129.
- Andrews, L. M., Bullock Yowell, E., Dahlen, E. R., & Nicholson, B. C. (2014). Can perfectionism affect career development? Exploring career thoughts and self 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2(3), 270-279.
- Autin, K. L., Douglass, R. P., Duffy, R. D., England, J. W., & Allan, B. A. (2017). Subjective social status, work volition, and career adaptabili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9, 1-10.
- Blankstein, K. R., Flett, G. L., Hewitt, P. L., & Eng, A.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irrational fears: An examination with the fear survey schedu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3), 323-328.
- Blustein, D. L. (2006).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and public policy*. Mahwah, NJ: Erlbaum.
- Blustein, D. L. (2008). The role of work in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A conceptual, historical, and public policy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63(4), 228-240.
- Bouchard, L. M., & Nauta, M. M. (2018). College students' health and short-term career outcomes: Examining work volition as a mediator.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5(4),

- 393-406.
- Brown, K. W., & Ryan, R. M. (2004). Fostering healthy selfregulation from within and withou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n P. A. Linley & S. Joseph (Eds.),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pp. 105-124). New York: Wiley.
- Buyukgoze-Kavas, A., Duffy, R. D., & Douglass, R. P. (2015). Exploring links between career adaptability, work volition, and well-being among Turkish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0*, 122-131.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ew York: Behavioral.
- Chang, E. C. (2006).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adaptive and maladaptive aspects of performance perfectionism: Relations to personality,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6), 677-697.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29-137.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reed, P. A., Patton, W., & Bartrum, D. (2004). Internal and external barriers, cognitive style, and the career.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0*(4), 277-294.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NY: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1987). The support of autonomy and the control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024-1037.
- Duffy, R. D., Autin, K. L., & Bott, E. M. (2015). Work volition and job satisfaction: Examining the role of work meaning and person-environment fit.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3*(2), 126-140.
- Duffy, R. D., Blustein, D. L., Diemer, M. A., & Autin, K. L. (2016).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2), 127-148.
- Duffy, R. D., Bott, E. M., Torrey, C. L., & Webster, G. W. (2013). Work volition as a critical moderator in the prediction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1), 20-31.
- Duffy, R. D., Diemer, M. A., & Jaidian, A. (2012).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Work Volition Scale-Student Vers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0*(2), 291-319.
- Duffy, R. D., Diemer, M. A., Perry, J. C., Laurenzi, C., & Torrey, C. L. (2012). The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Work Volition Sca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2), 400-411.
- Duffy, R. D., Dik, B. J., Douglass, R. P.,

- England, J. W., & Velez, B. L. (2018). Work as a calling: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4), 423.
- Duffy, R. D., Douglass, R. P., & Autin, K. L. (2015). Career adaptability and academic satisfaction: Examining work volition and self efficacy as medi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0*, 46-54.
- Dunkley, D. M., Blankstein, K. R., & Berg, J. L. (2012). Perfectionism dimensions and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3), 233-244.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453.
- Enns, M. W., & Cox, B. J. (2002). The nature and assessment of perfectionism: A critical analysi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33-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errari, J. R., Johnson, J. L., &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Press.
- Flett, G. L., Besser, A., Davis, R. A., & Hewitt, P. L. (200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r Therapy, 21*(2), 119-138.
- Flett, G. L., Blankstein, K. R., Hewitt, P. L., & Koledin, S. (1992). Component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0*(2), 85-94.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 61-68.
- Flett, G. L., Hewitt, P. L., & Martin, T. R. (1995).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procrastination. In J. R. Ferrari, J. L. Johnson, & W. G. McCown (Eds.),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13-136). New York: Plenum.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Frost, R. O., & Shows, D. L. (1993).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compulsive indecisiven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7), 683-692.
- Gnilka, P. B., & Novakovic, A. (2017). Gender differences in STEM students' perfectionism, career search self efficacy, and perception of career barrie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5*(1), 56-66.
- Guan, P., Capezio, A., Restubog, S. L. D., Read, S., Lajom, J. A. L., & Li, M. (2016). The role of traditionality i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4*, 114-123.
- Guay, F., Boggiano, A. K., & Vallerand, R. J. (2001). Autonomy support, intrinsic motivation, and perceived compet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linkages.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6), 643-650.
- Guay, F., Sené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65-177.
- Halgin, R. P., & Leahy, P. M. (1989). Understanding and treating perfectionistic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222-225.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15, 27-33
- Hart, B. A., Gilner, F. H., Handal, P. J., & Gfeller, J. D.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effic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1), 109-113.
- Hayes, A. (2012). *PROCESS SPSS Macro* [Computer software and manual].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2004).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 Technical manual*. Toront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Hewitt, P. L., Flett, G. L., Besser, A., Sherry, S. B., & McGee, B. (2003). Perfectionism Is Multidimensional: a reply to Shafran, Cooper and Fairburn (2002).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10), 1221-1236.
- Jadidian, A., & Duffy, R. D. (2012). Work voli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academic satisfaction: An examination of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2), 154-165.
- Lehmann, I. S., & Konstam, V. (2011). Growing up perfect: Perfectionism,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career indecision in emerging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9(2), 155-162.
- Leong, F. T., & Chervinko, S. (1996). Construct validity of career indecision: Negative personality traits as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3), 315-329.
- Lounsbury, J. W., Loveland, J. M., Sundstrom, E. D., Gibson, L. W., Drost, A. W., & Hamrick, F. L. (2003). An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 to career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3), 287-307.
- Mills, J. S., & Blankstein, K. R. (2000). Perfectionism, intrinsic vs extrinsic motivation, and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6), 1191-1204.
- Muller, D., Judd, C. M., & Yzerbyt, V. Y.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Page, J., Bruch, M. A., & Haase, R. F. (2008). Role of perfectionism and five-factor model traits in career indeci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8), 811-815.
- Patton, W., Creed, P. A., & Watson, M. (2003). Perceived work related and non-work related barriers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Australian and South African adolescent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5*(2), 74-82.
- Park, H., Choi, B. Y., Nam, S. K., & Lee, S. M. (2011). The role of career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South Korean undergraduate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8*(1), 27-36.
- Pesch, K. M., Larson, L. M., & Surapaneni, S. (2016).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career well-being: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nd volitional autonom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3), 497-512.
- Ryan, R. M., &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In: Deci, E. L., Ryan, R.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Sherry, S. B., Hewitt, P. L., Besser, A., McGee, B. J., & Flett, G. L. (2003).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n the Eating Disorder Inventory Perfectionism Sub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1221-1236.
- Sherry, S. B., Mackinnon, S. P., & Gautreau, C. M. (2016). Perfectionists don't play nicely with others: Expanding the social disconnection model. In F. M. Sirois, & D. S. Molnar (Eds.), *Perfectionism, health, and well-being* (pp. 225-243). New York, NY: Springer.
- Sherry, S. B., Mackinnon, S. P., Macneil, M. A., & Fitzpatrick, S. (2013). Discrepancies confer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112-126.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33-646.
- Stoeber, J., Mutinelli, S., & Corr, P. J. (2016). Perfectionism in students and positive career planning attitud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7*, 256-259.
- Stoeber, J., Feast, A. R., & Hayward, J. A. (2009).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Differential relationships with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and test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423-428.
- Stoeber, J., & Otto, K. (2006).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295-319.
- Wang, X., Cai, L., Qian, J., & Peng, J. (2014). Social support moderates stress effects on de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Systems, 8*(1), 41.
- Weisinger, H., & Lobsenz, N. (1981). *Nobody's perfect*. New York, NY: Warner Books.

- Yoon, J., & Lau, A. S. (2008).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Contributions of interdependence and parental relation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2), 92-101.
- Zhou, X., Zhu, H., Zhang, B., & Cai, T. (2013).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anxiety in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1*(7), 1141-1152.

원 고 접 수 일 : 2019. 09. 03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1. 28

게 재 결 정 일 : 2019. 12. 20



##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Work Volition, Social Support, and Career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A Mediated Moderation Model**

**Na-Rae Kim<sup>1)</sup>**

**Hye-Yeon Roh<sup>2)</sup>**

**Ki-San Park<sup>2)</sup>**

**Ki-Hak Lee<sup>3)</sup>**

<sup>1)</sup>Institute of Human Behavior, Yonsei University / Researcher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 Student

<sup>3)</sup>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 Professor

This study applied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 and Self-Determine Theory (SDT) to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rough an integrated model, the authors attempt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career satisfaction. In this mediated moderation model,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and career satisfaction, and this moderating effect was mediated by work volition. Participants included 253 undergraduates who completed a survey. The results indicated that work volition, career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rfectionism. Additionally,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perfectionism and career satisfaction was confirmed,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work volition. Finally, work volition mediated perfectionism and career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work volition.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work volition, career satisfaction, social support, mediated moderation